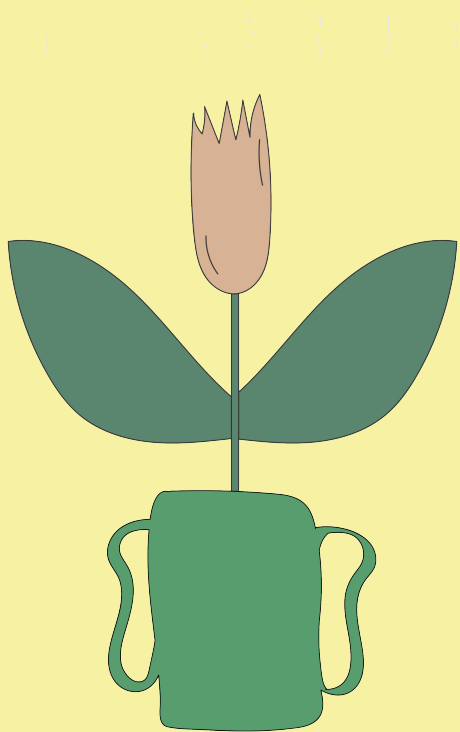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6. 3. 18.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2절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3절 주께 네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코러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주로 군대나 직장에서의 복종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강압에 의한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충성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생명을 걸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과 개인의 신앙의 중심을 점검해 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충성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태도입니다.

본문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토스(πιστός)'는 '믿음(피스티스)'과 어근이 같습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변치 않는 신실함과 신뢰성'으로 정의합니다. 즉, 충성은 내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확정'하는 것이 충성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어려워지면 곧장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성은 기본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시다"는 신뢰를 끝까지 지키는 '일관성'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충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흔들리는 나 자신을 잡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보여내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충성은 한계를 거부하는 전인격적 헌신입니다.

본문에 "...죽도록(아크리 타나투, ἄκρι θανάτου) 충성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크리 타나투'는 단순히 '죽을 때까지(시간적)'라는 뜻을 넘어 '죽음에 이르기까지(질적)'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조차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절대적 자기 부인'을 뜻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풀리갈 감독이 화형대 위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충성은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대개 '적당히'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내 시간, 내 재산, 내 자존심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한계선'을 넘어서길 원하십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죽도록' 하는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나의 시간, 재산, 자존심을 주님께 드리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충성은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본문 하반절에 "...그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관'에 해당하는 '스테파노스(στέφανος)'는 왕이 쓰는 금관이 아니라,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이 상급은 '영생의 영광'이며, 고난을 이긴 자들이 누릴 최후의 승리라고 설명합니다. 충성하는 자는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보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동력은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이 쓰워주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한마디를 소망하며 묵묵히 좁은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이 여러분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충성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환경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며, 반드시 생명의 관으로 갠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눔 **다 같이**

1.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2.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생각이나 권리는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 누구에게 사랑과 충성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 **믿음의 가정을 위해** **다 같이**

1.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도록
2.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3.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도록
4. 믿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도록
5.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과 충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